

# 전남 유기·무항생제 축산농가 2년 연속 1위

전남 1688개 농가... 전국 비중 유기 축산물 13%·무항생제 26%  
무항생제 한우 농가 881곳 전국 25%... 오리 285곳·육계 174곳

전남 유기·무항생제 축산농가가 지난해부터 경기를 제치고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전남지역 유기·무항생제 농가는 전년보다 90곳 증가해 1700곳에 육박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남 유기·무항생제 축산농가는 지난 달 1일 기준 1688곳으로, 지난해 말보다 90곳(5.6%) 증가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 유기·무항생제 축산농가는 연 평균 100곳 넘게 증가해왔다.

전남 유기·무항생제 축산농가 수는 ▲2018년 1452곳(유기축산물 15곳·무항생제 1437곳) ▲2019년 1598곳(유기 16곳·무항생제 1582곳) ▲2020년 1688곳(유기 14곳·무항생제 1674곳) 등으로 오름세를 지속했다.

지난해 전남 유기·무항생제 농가 수는 경기(1498곳)를 제치고 2년 연속 9개 도(道) 가운데 가장 많았다.

올해는 전남(1688곳)에 이어 경기(1547곳), 전북(712곳), 경북·경남(각 629곳), 충남(570곳), 충북(495곳), 강원(296곳), 제주(101곳)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남 유기축산물 생산농가(14곳)는 전체

(110곳)의 13%를 차지했고, 무항생제 농가(1674곳) 비중은 전체(6557곳)의 26%였다.

품목별로 보면 전남에는 무항생제 한우 농가가 88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국 무항생제 농가 3460곳의 4분의 1(25%)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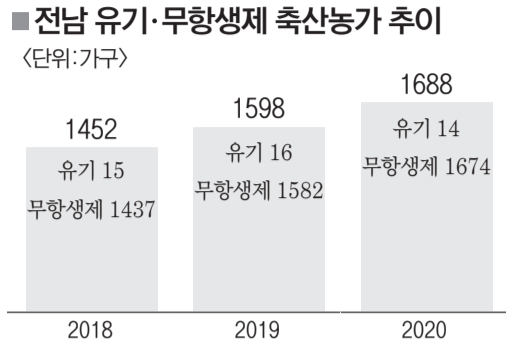
한우에 이어 무항생제 오리 농가가 285곳으로 뒤를 이었고 무항생제 육계(174곳), 무항생제 돼지(115곳), 무항생제 젓소(85곳), 무항생제 산란계(74곳), 무항생제 육우(26곳), 무항생제 기타(34곳) 순으로 나타났다.

유기 축산농가를 품목별로 보면 한우(9곳), 젓소(4곳), 산란계(1곳) 순이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11월 벌인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유통·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절반 가량(53.4%)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동안 생산자 203명, 취급자 85명, 유통업체 13개, 소비자 206명으로 대상으로 방문 또는 우편·전화로 이용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축산농가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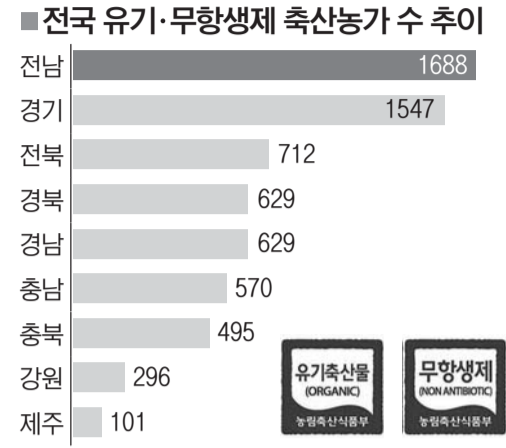
한 이유로 '환경 및 축산물 안전 고려'와 '인증을 통한 높은 가격 판매'를 주로 꼽았다.

유기축산물 인증을 취득한 후 초기비용 부담을 극복하고 수익이 회복되는 기간은 평균 3.9년으로 조사됐다. 축종별로는 육계 7년, 젓소 4.4년, 소 4.1년, 돼지 3.5년 순이었다.

예로사항으로는 '직불금 등 지원 부족'(30%), '사료 등 생산비 증가', '인증 절차의 복잡성' 등을 들었다.

소비자의 53%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해 '잘 또는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전혀 모른다'는 응답도 47%를 차지했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한 인지도는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75.0%)→50대(67.3%)→40대(51.9%)→30대(47.8%)→20대(35.3%) 등



줄어들했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구매한 후 87.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한 소비자는 비싼 가격을 주된 이유로 지적했다.

유기 축산물은 100% 유기사료를 공급하고 동물용의약품 사용하지 않으며 동물복지도 고려하는 등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로 2001년 처음 도입됐다.

2007년 도입한 무항생제 축산물은 항생제를 첨가하지 않은 사료를 주고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촌체험 AI 추천서비스 등 빅데이터 온라인 해커톤 대상 활용사업안 6편 선정

농식품 빅데이터를 활용한 참신한 사업안 6편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개최한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aT는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식품 빅데이터 온라인 해커톤' 본선에서 최종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aT는 지난 11일 서비스 개발과 아이디어 기획 분야 해커톤 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예선을 통과한 20개 팀은 실현가능성, 효과성, 데이터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았다. 평가 결과 대상 2팀, 최우수상 4팀, 우수상 8팀을 최종 선정했다.

서비스 개발 분야 대상은 농촌체험 인공지능(AI) 추천서비스 등 6차산업 통합플랫폼을 개발한 '오늘의 체험팀'이 차지했다.

아이디어 기획 분야에서는 채식주의 밀레니얼 소비자를 위한 영양식 식재료 추천서비스를 기획한 '배려베지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외 못나리 농산물 거래플랫폼, SNS 분석을 통한 레시피 추천서비스, 예측생산량 분석기반 생산량 공급조정시스템, 사과의 생육 및 품질예측 서비스 등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aT는 내년 초 '농식품 빅데이터 거러소'를 출범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삼도농협,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강형구·왼쪽 두번째)와 삼도농협(조합장 오종선)은 14~16일 농가주부모임·부녀회와 김치 700포기를 담가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 여수 '죽포 갖도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개발 우수상

한국농어촌공사 KRC 전남지역센터가 개발 지원한 여수 '죽포 갖도고'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7일 'KRC지역개발센터 성과공유회'를 열고 전남센터 등 농어촌 지역개발 우수사례를 시상했다.

우수상을 받은 KRC 전남지역센터는 여수의 특산물 갖을 활용한 '죽포 갖도고' 상품을 개발하고 조리법을 공유했다.

또 민·관 협업체를 구성해 '강진 탐진사인권역'을 운영 정상화 궤도에 올리기도 했다.

우수사례센터 심사는 1차와 2차로 내·외부 심사단이 서면 및 영상 사례발표를 통해 7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최우수상에는 도내 9개 시·군 '농촌협약' 참여를 주도한 KRC 전북지역센터가 뽑혔다.

공사는 올해 2월 지역개발 전문지원조직인 KRC지역개발센터를 전국 9개 도별로 발족했다. 내·외부 전문가 총 300명은 주민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관원 전남지원, 안전관리 최우수 인증 연구실 선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2020년 최우수 인증 연구실'에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표창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으로는 처음이다.

전남지원이 최우수 인증 연구실에 선정된 실험실은 '잔류농약분석 중앙전처리실'이다.

전남지원은 올해 과기부가 개최한 '사전유해인 자위험분석 보고서 경진대회'에서 국가기관 및 잔류농약 분석 업무 분야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남지원 품질관리과 분석실은 전처리실(260㎡), 기기실(369㎡) 등 총 1328㎡ 규모로, 지난 2011년 신축됐다.

정밀분석을 위한 83종 320대 장비를 갖추고 잔류농약, 원산지, 중금속, 미생물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실시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심사를 통해 우수연구실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올해 과기부 최우수 인증 연구실에는 농관원 전남지원과 고려대학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덕성여대, 순천향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현대제철(주) 현대제철연구소 등 7곳이 이름을 올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강석이의 유머인생  
**밤벌레의 행복**  
이기원 지음

정가 12,000원

### 전라도 촌놈 이기원이 쓴

# '밤벌레의 행복'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강석이의 유머인생**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은이 이기원

**행복요양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에스24 (배송료 무료)

전주(영풍문고, 응진서적, 흥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